

일주문



‘우리민족통기’ 6돌 행사
월주 우리민족서도모듬기운 동 상임대표는 13일 서울 능 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창립 6 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월산 큰스님 추모다례제
종상 경주 불국사 주지는 11 일 불국사 무설전에서 월산 큰스님 열반 4주기 추모 다례 제를 봉행했다.



파리미터 대구지부장 취임
지성 동화사 주지는 14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파리 미터 청소년협회 대구지부 제 2대 지부장 취임식을 가졌다.



일주은 건립불사 착공
지흥 조계사 주지는 12일 조 계사 입구에서 성토제(盛土 祭)를 봉행하고 일주은 건립 불사를 착공했다.



포교원으로 사무실 이전
성광 조계종 군불교위원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포교원 4층으로 군불교위원 회 사무실을 이전했다.



일본시찰 마치고 귀국
진옥 여수 석천사 주지는 오 사카 사천왕사를 비롯 일본의 대표적 복지기관 6곳을 시찰 하고 11일 귀국했다.



약사여래부처님 점안식
송정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 원장은 11일 연양 작천정 미 륵종 중앙연수원에서 약사여 래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무룡산 법음’ 발간
정각 조계종 문화부장은 11 일 법문집 《이야기로 배우는 불교-무룡산 법음》(성보문화 재연구원)을 발간했다.



수재민들기 바자회 열어
김규대 2군 사령부 군종참 모 대령은 11일 대구 무열대 중문 앞에서 수재민 돕기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공화정에
하만경 부경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7일 영남대학교에서 열 린 한국기독교공화회 정기총 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12월 완공... 제2의 개국 발판”

무상사 건립 입재법회 연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착공 후 1년여의 공사 끝에 금 년 12월에 완공되는 봉천동 사옥 의 건립은 그동안 경영난으로 어 렷음을 겪었던 불교 TV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 니다. 외형적인 불사와 함께 방송 의 질적인 변화에도 치중해 ‘제2 의 개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10일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불교 TV 법당 (무상사) 건립 입재법회’에서 불 교 TV 회장 성우스님은 무상사 건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성우 스님(사진)은 “현재 대지 3 백12평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 모로 지어질 새사옥에는 방송 스

튜디오와 법당, 편집실 사무실 등 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특히 5층 에 마련되는 무상사 법당은 선지 식들을 초청한 법회와 각종 불교 계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설계했 다”고 밝혔다. 또 사옥 각층마다 에는 육바라밀을 지칭하는 보시 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이름을 붙이고, 건물 정면 의 옥상에는 팔정도(八正道)를 한문으로 새겨 놓아 알핏 보도도 불교식 건 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해 놓을 계획이다.

부채도 반이상 줄여 경영상태 도 많이 호전돼 좋은 프로그램 공 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성 우 스님은 “불교 TV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6시간 동안 생방송 할 정도로 8년동안 불교영상 포교를 위한 기술과 노 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내년 3월 에는 새사옥에 들어가 불자들에게 게 질 높은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 도록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ia.com

“대구경북지역 곳곳에 법음을”

대구불교방송 신임 총괄국장 종수 스님



“포항, 안동 등지에 지역 중계 소를 세우는 등 난청지역의 가청 권을 넓혀 대구경북지역 어디서 나 부처님의 법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 26일 대구불교방송 총괄국 장에 임명된 종수스님(사진)은 경주 분 황사 주지·사진은 “대구불교방 송이 지역 민영방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불교 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수스님은 또 방송내용 중 불 교계소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앞으로 BBS계시관 등을 적극 활용하고 홈페이지 보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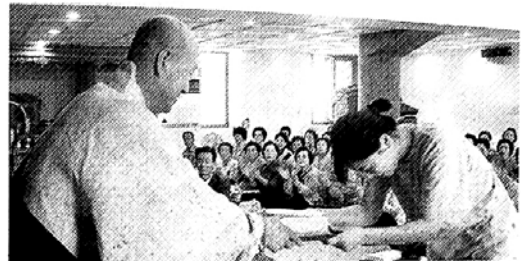
통해 방송으로 다루지 못한 내용 은 인터넷에 게시해 교계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높일 계획도 밝혔 다.

아직 방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려 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스님은 방송 일에만 전념하기 위해 경주 분황사 주지직도 그만두었다.

“불교의 종교적 특수성과 대중 과 방송이라는 대중성이 서로 절 묘한 조화를 이룰 때야만 대구불 교방송이 지역불교정보의 중심역 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특히 “좋은인연 만들기 연중 캠페인”을 전개해 사부대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무량심 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 이 더불어 함께하는 보시 실천 운 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 라고 밝혔다. 종수 스님은 총무원 감사국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했 으며, 원효학연구원 총무이사과 부 원장을 맡았다. 불교청주방송 운 영위원과 감사로서 방송과의 인 연을 맺었다. 박원구 기자

박원구 기자



두산장학회 법운스님 등 장학금

두산장학회(이사장 일민·봉선사 주지)는 7일 보현사에서 광동 여자고등학교 1학년 서은해 양과 중앙승가대학 법운 스님을 비롯 한 14명의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일 민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 사회발전 과 불교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참선전문도량 공생선원 개원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공생선원(원장 무각)이 8일 개원식을 봉 행했다. 1부 부처님집안식, 2부 개원법회로 진행된 이날 동산불교 대학장 무진장스님, 금강선원장 해거스님, 조계사 주지 지흥스님 등 4백여명이 동참했다. 공생선원은 수요일 참선입문교육, 금요 일 실수, 매월 둘째 참선월야정진 등을 개최한다. (02)900-2448



청주불교련 영규대사 추모제

청주시 청주성달한기법사업회와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6일 청 주 중앙공원에서 임진왜란시 청주성 달한 제410주년 추모대회를 봉행했다. 영규 대사를 추모하기 위한 이날 행사는 풍우사 주지 범후 스님과 청주불교방송 사장 현중 스님, 광덕사 주지 일봉 스 님, 한대수 청주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장수 죽림정사 승방 상량식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11일 죽림정사 내 위치한 용성스 님 생가터에 승방 상량식을 거행했다. 천룡사 주지 환희스님, 아 도모례원 주지 보승스님, 용성스님 기념사업회 유종협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문스님은 “33인 민족대표 중 한 분 인 용성스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생가복원 사업을 전개하겠다” 고 말했다.

“조동선맥 복원·목조선풍 선양”

5일 창종 ‘한국조동종 총본산’ 학봉 총무원장



“현재 우리 불교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고행을 도외시하는 안일한 풍토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동선맥을 복원하고 목조선풍을 선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일 서울 용산구 원효사 대웅전 에서 열린 한국조동종 총본산 창 종법회에서 초대 총무원장에 취 임한 학봉스님(사진)은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국조동종 총본산을 창종하 게 된 것은 간화선 일색의 한국불 교 토양아래 명맥이 끊겼던 조동

선(목조선)의 뿌리를 내리고, 생활 선풍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화두를 드는 간화선과는 달리 조 동선은 본래 청정한 자신의 진면 목을 지키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생활에서 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조동종 총본산 산하 사찰은 20여 곳. 창종을 준비하면 서 함께 하겠다는 스님들이 많았 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종단 소 속 사찰을 지정했다. 창종을 계기 로 조동종의 종지종풍을 선양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단 스님 들의 의지와 청정함이 필요하도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단 소속 절마다 선방을 만들 어 불자들에게 조동선을 가르치 고, 조동선에 해박한 지도법사도 양성할 것입니다. 또 ‘조동선학 원’을 설립해 종단 차원에서 조동 선 보급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학봉스님은 현재 한국조동종 총본산의 사단법인 등록을 준비 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한국불교 세계에 알릴 터”

참여불교재가연대 김창영 국제협력위원장



“그동안 세계불교의 흐름 속에 서 한국불교는 상대적으로 소외 된 면이 많았습니다. 해외 참여불 교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자비 화와 관용의 불교적 이념을 국제사 회와 평화 인권운동속에서 실현 시키고 제3세계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불교를 알리고 세계불교 의 움직임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 도 꾸준히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11일 공식 발족한 재가연대(상 임대표 박광서) 국제협력위원회 김창영(47) 코리아타임즈 논설위 원·사진 위원장. 김 위원장은 80년대와 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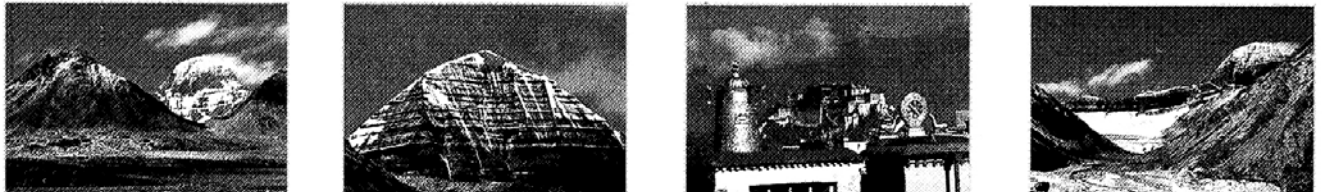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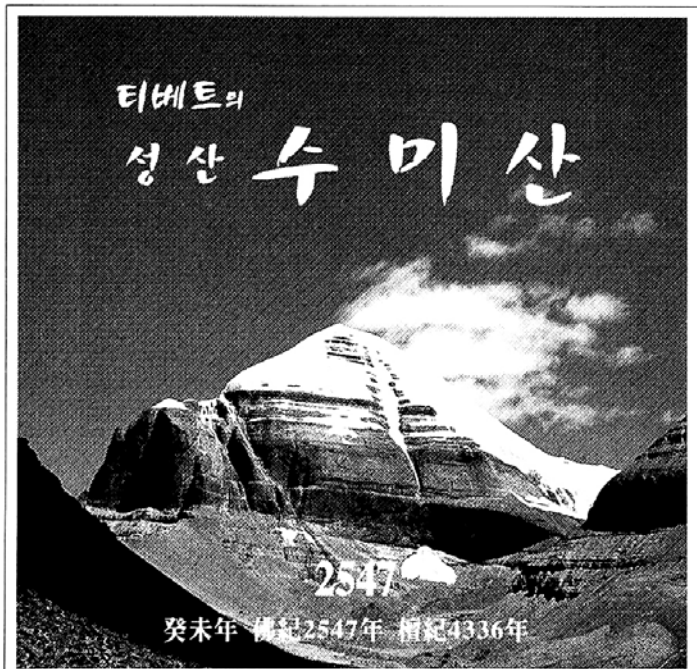
를 거치면서 축적된 불교계의 저 력, 특히 개인의 수행과 사회의 개 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참여불교 운동의 저력을 이번 기회에 세계 불교계와 이웃종교들에게 널리 알릴 생각이다.

이를 위해 참여불교 이념에 동 참하는 국제불교 단체들과의 정보 교환 및 연대도 모색해 참여불교 네트워크의 구성도 적극 추진하고 9월말 경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활 동자 원봉사단도 구성할 계획.

참여불교네트워크 구성 외에 국제협력위원회의 쟁점 사업은 인도불교 등 해외불교의 지원. 국 제협력위는 10월 20일 경 인도 우 다프라데시 주 상카시아에서 열 리는 수계식 등 인도인 불교 개종 운동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김창영 위원장은 18일~22일 덴 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2002 아셈인간포럼 종교·영성분과 회 의에도 한국과 불교계를 대표해 원·사진 위원장. 김 위원장은 80년대와 90년대

2003년은 수미산 달력으로 선택하십시오



2003년 수미산 달력을 주문받습니다. 이번 달력은 부처님의 세계로 불리우는 수미산을 실었습니다.

경전상의 수미산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산으로 우주의 중심이다. 그 둘레에는 일곱 겹의 황금산들과 일곱 겹의 바다가 에워싸고 있으며 그 바깥에 우리의 우주가 놓여 있다. 이와같은 수미산설의 모델이 되는 산이 티베트의 성산인 수미산이다. 해발 6714미터의 수미산은 범상치 않은 모양새와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기운 때문에 이 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한다. 수미산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그런 산이다. 티베트인에게 수미산은 성산으로 부처님의 세계로 불리운다. 티베트 문화대전 등 몇차례 출품한 작품들을 모아 달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달력으로 신비로운 수미산을 만나보십시오.

◆달력주문처: 실크로드기획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443-1 (대구) 053-633-3611

(주)실크로드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TEL:(02)720-9600 FAX:(02)734-9937

- 성지 순례 안내 ■
- 인도 성지 순례 9일
 - 출발 : 11월 7일, 21일
- 스리랑카 순례 6일
- 미얀마 순례 6일
- 캄보디아 베트남 6일
- 인도네시아 순례 6일
- 중국 구화산 황산 5일
- 보타산 항주 5일
- 아미산 대족석굴 5일
- 오대산 북경 6일
- 티베트 성지 순례 8일

특별한 여행! 티베트 수미산 순례 : 신비로운 기운과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일정 - 21일간 (수미산 순례단 출발은 2003년 6월 1일, 8월29일 년 2회 모집)